

## 온라인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적정성 및 효과에 대한 초등 예비교사들의 인식\*

이영아<sup>1</sup>, 윤옥경<sup>2</sup>

### 《 요 약 》

본 연구는 Covid-19으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C교대가 시도한 온라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적정성 및 효과를 평가하여 향후 온라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의 적정성,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 및 만족도, 프로그램의 효과, 프로그램의 한계 및 개선점을 알아보았다. 설문 결과,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참여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운영 기간 및 방식과 내용 및 과제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다수였으며, 참여도 및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긍정적이었다. 프로그램의 효과 측면에서도 영어 능력의 향상 정도, 현지 문화 및 교육에 대한 이해 모두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이 과반수를 상회하였다. 또한, 온라인 수업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고 과제 수행, 토론에 참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었으며, 학습관리시스템이나 자료함 등의 온라인 플랫폼도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연수 참여자수의 적정성, 현지 학교 수업 관찰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점 등 온라인 연수의 제한점에 대한 지적 및 개선 요구도 제기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온라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개선 및 운영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글로벌 역량, 교사교육, 해외 교육실습, 해외 영어연수, 온라인 연수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청주교대 교육연구원 발전방안연구(CJE2020D063 예비교사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해외교육 프로그램 실행연구)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

1. 청주교육대학교 부교수, leeya14@cje.ac.kr (주저자)  
2.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okyoon@cje.ac.kr (교신저자)

## I. 서론

그간 세계화(globalization)와 다문화라는 사회 변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교육 정책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으며,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교육과정 개혁과 교사교육에서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이나 세계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 문화간 역량(intercultural competence)을 핵심 역량으로서 강조하고, 다문화교육이나 외국어교육을 강화해 온 것을 들 수 있다(신현석, 주희정, 정주영, 신원학, 2009; 이해원, 이수정, 박찬호, 김형렬, 2019; 정혜영, 2012; 최윤정, 최민식, 2011; OECD, 2005, 2018).

이러한 교육 정책 변화에 따라 교원 양성 기관에서도 예비교사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국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정혜영(2012)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프로그램은 크게 해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실습, 해외 한국학교 교육실습, 해외 학교 탐방 및 특강, 개발도상국 교육실습 및 봉사, 해외 인턴십, 해외 교환학생, 해외 어학연수의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초등 교원들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에서는 학교 규모가 작아 다양한 국외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예비 교사들의 경험의 폭과 질을 넓히기 위해 주로 국외 교육실습이나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강후동, 2010).

최근에는 Covid-19으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으로 대학들의 해외 현지 프로그램 대부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온라인 해외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해외 현지로의 출입국이 어려운 환경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긍정적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항공료나 현지 홈스테이 등의 체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간 비용 부담으로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던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해외에서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없다는 점도 있다. 그러나 그간의 해외프로그램이 현지에서의 교육, 문화, 생활을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예비교사들도 이러한 이유로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교대에서 실시한 동계 온라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적정성과 효과에 대한 참여자 인식 및 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예비교사 온라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C교대 동계 온라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 및 내용 적정성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과 프로그램 참여도 및 만족도는 어떠한가?

둘째, C교대 동계 온라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효과로서 영어 능력과 타문화 이해에서의 향상 정도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C교대 동계 온라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서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은 어떠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요구는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예비교사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필요성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다문화 가구는 334,856가구이며, 국내 거주 외국인인 120만명이 넘는다(통계청, 2018). 정혜영(2012)은 다문화로 전환되는 우리나라 인구 변화에 부응하여 교원 양성 기관에서도 예비교사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예비교사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 및 필요성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강하게 대두되었는데, 신현석 외(2009)는 이를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먼저, 다문화 되어가는 한국 사회의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과 상호 존중과 수용,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교사들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세계화로 인해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국 생활을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게 될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도 국제어로서의 영어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은 물론 국제적인 경험과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예비교사의 글로벌 역량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역량이 무엇인지, 또한 이를 어떻게 함양할 수 있는지 모색해야 한다.

글로벌 역량에 대하여 Hunter, White와 Godbey(2006)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문화적 규범과 기대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려 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역량” (p 277)으로 정의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존중과 소통이 글로벌 역량의 핵심적인 부분임을 알 수 있다. Willard-Holt(2001)도 예비교사를 위한 글로벌 교육은 여러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존중, 다른 문화 그룹 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자신감과 기능을 배양할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비교사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수의 학자들은 해외 교육실습이나 봉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경험주의 학습 이론이나 상황 학습 이론에(situated learning theory) 근거하여 타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해외 현지에서의 체험이 가지는 가치를 역설한다(Cushner, 2007; Cushner & Mahon, 2002; Walters, Garii, & Walters, 2009). 일례로 Cushner와 Mahon(2002)은 문화 학습에서 실제적인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친숙하지 않은 사람과 맥락에서의 장기적이고 직접적이며 상당한 정도의 상호작용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상황 학습 이론에 따르면 지식과 인지는 그것이 습득되는 상황과 연계되어 이해되어야 한다. 이에 Putnam과 Borko(2000)는 예비 교사들이 늘 접하는 친숙한 교실 맥락에서의 배움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다양한 맥락에서의 경험을 가짐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외 교육 실습과 같이 새로운 맥락에서의 경험은 예비 교사들이 현지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맥락에서의 적용을 통해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육적 가치관이나 방법 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Cushner, 2007).

## 2. 해외 교육실습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효과

초등학교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에서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대부분 교육실습과 어학연수의 목적으로 운영된다. 해외 교육실습의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해외 현지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관찰하고 실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영어 능력 향상도 함께 꾀하기 위해 영어권 국가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다수의 국내외 연구들은 해외 교육실습이 예비교사들의 전문성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다. 먼저 해외 교육실습의 효과를 탐색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분석한 논문으로는 Cushner(2007), Walters 외(2009)를 들 수 있다. Cushner(2007)에 따르면, 해외 교육실습이나 봉사는 예비교사들의 전문성 발달은 물론 개인적 변화도 함께 수반한다. 즉, 새로운 교육적 접근이나 철학을 접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지식과 적용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낯선 환경과 사람들을 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및 공감 능력도 향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 교육실습을 통해 익숙한 환경과 도움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결정하는 경험을 통해 교사로서의 자신감 및 자아효능감이 신장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실습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 관점에 대한 자각(perspective

consciousness)’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문화간 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이 높아지며, 이는 글로벌 공동체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국가 내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 및 존중으로 이어짐을 보고하였다. Walters 외(2009)도 해외 교육실습을 경험한 예비교사들은 실제 교수에서 유연성(flexibility)과 문화감수성을 발휘하게 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해외 교육실습에서 스스로 자료와 수업지도안을 개발하여 수업함으로써 창의적인 교수가 가능해지며, 자기 민족 중심적인(ethnocentric) 사고에서 벗어나 문화간 역량(inter-cultural competence)을 신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해외 교육실습의 긍정적 영향을 보고한 연구로는 Cushner와 Mahon(2002), Willard-Holt(2001)가 있다. Willard-Holt(2001)는 미국 예비교사들의 푸에르토리코와 쿠바 교육실습 경험에 대하여 면담과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문화적 감수성과 감정 이입, 유연성, 관점의 확장, 글로벌 교육에 대한 지향성, 성찰성(reflexivity)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Cushner와 Mahon(2002)은 50명의 미국 예비교사들이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에서의 교육실습을 하는 동안 작성한 저널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효과를 알아보았다. 저널 분석을 통해 예비교사로서의 자기효능감 증가,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및 문화적 감수성 발달 등의 긍정적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교육실습이나 교육봉사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한 연구들이 다수 있었다(김민정, 2014; 전선영, 2020; 임수연, 2018; 최윤정, 2015). 김민정(2014)은 예비유아교사들이 네팔, 몽고,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온 교육봉사의 경험에 대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예비교사들은 인간과 관계에 대한 통찰을 하게 되었으며, 교사로서의 자신감과 소명감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선영(2020)은 초등 예비교사들이 5주 동안 미국에서 가진 교육실습의 경험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참여자들은 현지에서의 한국 문화 수업과 협력 교사 및 학생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영어로 하는 수업뿐만 아니라 현지인들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임수연(2018)은 영어 능력 향상 측면에서 해외 교육실습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서, C대학 뉴질랜드 국외 교육실습에 한 달간 참여한 15명의 초등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어학습과 관련한 정의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예비교사들은 영어 사용의 양과 질 측면에서 개인별 상이점이 있었지만, 해외 학교에서의 수업 시연을 통해 대부분 참여자가 영어 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자신감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해외 교육실습의 긍정적 측면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Parr & Chan, 2015; Sharpe, 2015). 이들의 비판은 주로 해외 교육실습의 실제적 한계점과 관련되는데, 주로 짧은 실습 및 체류 기간과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에 대한 접근 용이성으로 인해 예비교사들이 단순히 ‘여행자적 시선(tourist gaze)’으로 실습에 참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현지 문화를 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짧은 기간의 경험만을 바탕으로 현지 문화에 대한 과일반화를 하거나 현지 문화에 대한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이들의 비판은 해외 교육실습의 기간 및 운영 방식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연수 기간 경험의 폭과 깊이를 높이기 위해서 타문화 이해 및 현지에서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 3. 온라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효과

그간 교사교육에서 온라인 도구의 활용 및 원격연수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이도경, 김혜영, 2014; 임병빈, 김재영, 2008), 온라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영어 학습 분야에서 화상 영어가 대중적으로 활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교사들의 교육실습 및 어학연수 등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연구한 경우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현지에서의 체험에 의미를 두고 진행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사용성과 편의성이 높은 ‘Zoom’과 같은 화상회의 도구의 발달로 다른 나라 학습자 또는 교육자들과의 실시간 쌍방향 교류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일부 보고되고 있다. 먼저 예비교사들과 학습자 간의 해외 온라인 교류 효과를 살펴본 연구로는 Lenkaitis(2020)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5명의 ‘TESOL(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전공 예비교사들이 총 4주에 걸쳐 멕시코와 한국인 영어학습자 그룹과 온라인으로 만나 영어를 가르쳤으며, 사전과 사후 설문, 교수 일지 및 성찰지, Zoom 세션의 녹화자료 등을 분석하여 예비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 예비교사들은 온라인 교수 및 이에 대한 성찰을 통해 영어학습자의 발달 및 오류 양상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강좌에서 배운 영어교수법 등의 이론과 실제를 연계할 수 있었다. Zhang, Li, Liu, Miao(2016)의 연구는 서로 다른 국가의 예비교사들 간 온라인 교류 효과를 알아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47명의 홍콩 예비교사들과 35명의 캐나다 예비교사들이 온라인으로 만나 교육적 이슈에 대하여 토론하고, 해당 이슈에 대하여 각자 수행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토론 주제는 교수학습에서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의 포용 방안,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s)의 활용 방안, 다중 지능 및 멀티미디어 활용 방안

이었으며, 연구자들은 온라인상에서의 인종학적 연구에 해당하는 ‘netnography’를 채택하여 온라인 토론과 프로젝트 공유의 과정에서 산출된 다양한 자료 및 설문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비교사들은 온라인상의 상호 협력과 지원을 통해 교육 이슈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었으며, 문화간 차이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지식을 늘릴 수 있었다. 또한, 개별 국가 및 글로벌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교육적 이슈의 맥락 및 배경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Lenkaitis(2020)와 Zhang, Li, Liu, Miao(2016)의 연구는 온라인 해외 교류를 통한 예비교사 전문성 신장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만,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프로그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오프라인 해외 교육실습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현지의 교육체계 및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특강 및 워크숍, 현지 교실 수업을 관찰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현지 협력교사들과 수업에 대하여 토의하고 수업을 실행해 볼 기회, 또한 이들을 통한 영어 수업 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을 포함한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행하고 이의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교사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연구 방법

#### 1. C교대 해외 연수 프로그램 개요

초등 예비교사 양성기관인 C교대에서는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하였던 동계 방학 중의 오프라인 해외 교육실습 및 연수 프로그램을 2020학년도에는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들 온라인 프로그램은 C교대 국제교류센터와 영어권 국가인 캐나다와 호주대학의 현지 교육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개발하였으며, 프로그램의 개요 및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C교대 온라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 개요 및 구성

연수 국가	협력 기관	연수 기간(시간)	운영 방식	프로그램 내용
호주	남호주교육청 및 관할학교, A대학	2021.1.25.~2.19(4주) 월~금 09:00~11:00 (총 40시간)	Zoom & Moodle	-남호주 교육 및 교육과정 이해 -남호주 교실수업 온라인 참관 및 수업실습 -교실영어, 호주영어

캐나다	T대학 평생교육원	2021.1.18.~2.12(4주) 월/목/금 9:00~11:30 (총 30시간)	Zoom & 대학 LMS	-캐나다교육 및 교육학, 개별 연구 프로젝트 -영어교수법 및 교수학습 활동, 마이크로티칭 -교실영어
-----	-----------	---	------------------	---

호주와 캐나다 온라인 프로그램은 총 40시간의 교육 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동시적인 의사소통(synchronous communication)과 비동시적 의사소통(asynchronous communication)이 모두 가능하도록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Zoom'과 학습관리시스템(LMS)을 모두 활용하여 운영되었다. 공식적인 40시간의 연수는 주로 'Zoom'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외 시간에는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연수자료에 대한 접근이 상시로 가능하였으며 과제 및 프로젝트 등의 공유도 함께 이루어졌다.

호주와 캐나다 온라인 프로그램의 목적은 연수 국가의 교육제도 및 문화를 이해하고, 예비교사들의 수업전문성 및 영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이전에 C교대에서 운영하였던 오프라인 해외 교육실습 프로그램과 동일하였다. 다만, 협력기관에 따라 현지 초등학교 수업에 대한 온라인 접근 가능 여부나 연수 참여 인력의 특성이 달랐기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실습 프로그램에 비하여 현지 학교 수업 참관 및 실습의 비중을 줄이거나 유사 내용으로 대체하였다. 호주 프로그램은 현지 대학과 연계한 강의 및 워크숍, 남호주 교육청 및 관할 학교와 연계한 수업참관 및 실습으로 구성되었다. 강의 및 워크숍의 내용은 남호주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호주 영어의 특성 및 문화, 교실영어로 구성되어 A대학의 강사가 담당하였으며, 참여한 예비교사들 간의 토론 및 발표도 함께 이루어졌다. 수업참관 및 실습은 예비교사들은 현지 4개의 협력학교(C, H, L, K학교) 및 교사들과 연계하여 Zoom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캐나다 프로그램도 호주와 동일하게 교실 영어 및 캐나다 영어를 연수 내용으로 포함하여 예비교사들의 영어 수업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호주와 달리 현지 초등학교에 대한 온라인 수업 참관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T대학 평생교육원의 코디네이터와 강사가 주관하여 영어교수법 및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워크숍 및 마이크로티칭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현지 교육 및 교육학, 다문화교육에 대한 강의와 현지 교사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좋은 교사의 특성 및 역할에 대한 개별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발표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캐나다 프로그램에서는 계획된 40시간 외에도 T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언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함께 영어 게임 및 활동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별도로 제공되었다. 그러나 양국 간 시차로 인해 이러한 활동들이 주로 우리나라 새벽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비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참여하도록 하였다.



## 2. 연수 및 설문 참여자

호주와 캐나다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은 C교대의 모든 학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다만,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연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 인원에 제한을 두었다. 호주 프로그램은 모집 인원과 지원 인원이 동일하여 총 20명(남 4명, 여 16명)의 학생들을 선발하였는데, 2명이 연수 시작 전 참여포기 의사를 밝혀 최종 18명(남 4명, 여 14명)이 참여하였다. 캐나다 프로그램은 선발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아 지원계획서 심사와 영어면접을 토대로 총 15명(남 2명, 여 13명)을 선발하였다. 이 중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들의 인원 및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온라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 및 설문 참여자

프로그램	인원	학년				해외연수 참석 여부	
		1	2	3	4	있다	없다
호주	18	9	6	3	0	2	16
캐나다	15	1	5	6	3	10	5
합계(%)	33	10 (30.3%)	11 (33.3%)	9 (27.3%)	3 (9.1%)	12 (36.4%)	21 (63.6%)

연수 및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1~2학년 참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4학년 참여자가 가장 적었는데, 이는 임용고시 및 졸업에 의한 영향으로 보인다. 교내에서 실시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의 참여 여부에 대하여는 63.6%가 ‘없다’로 응답하였고, 36.4%는 ‘있다’로 응답하였다. 이전에 해외연수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온라인 연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 3. 자료 수집 및 분석

### 가. 설문지 개발 및 개요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온라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적정성 및 효과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배경변인,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의 효과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개발되었다. 먼저 배경 변인으로 학년과 기존 해외 연수 프

로그래의 참여 여부를 포함하였으며,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해 기간 및 운영 횟수 적정성, 내용 및 수준의 적정성, 학생 본인의 참여도, 강사진과 지원 체제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예비교사들의 글로벌 역량 하위 요소로서 영어능력의 향상 정도와 현지 문화 및 교육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온라인 수업의 효과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세부 문항을 구성하였다. 특히 마지막 온라인 수업의 효과 측면에서는 직접 방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한 간접 경험과정으로 해외 연수가 실시되었던 만큼, 온라인 연수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개발된 설문지의 초안은 연구진 간의 상호 검토의 과정을 거쳐서 수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진들이 프로그램 지도교수로서 연수 프로그램에 참관한 경험과 연수 참여자들과의 면담 활동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설문지의 문항 내용과 유형은 <표 3>과 같다.

〈표 3〉 설문지 문항 내용 및 유형

구분	문항내용	문항 유형	문항 수
배경	배경변인	선택형	2
	프로그램 참가 동기	선택형	1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평가	프로그램 기간과 운영 방식의 적정성	척도형	2
	프로그램 내용과 수준의 적정성	척도형	2
	프로그램 학생 참여도	척도형	2
	프로그램 강사진 만족도	척도형	3
	프로그램 지원체관 만족도	척도형	2
		자유응답형	2
	프로그램 전반 만족도 및 지속필요성	척도형	3
자유응답형		1	
프로그램의 효과	프로그램의 효과-영어능력	척도형	8
		선택형	1
		자유응답형	1
	프로그램의 효과-현지 문화와 교육 이해	척도형	2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	척도형	5
		선택형	1
자유응답형		1	

#### 나. 설문결과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응답 중 양적 자료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특성상 참여자 수가 제한

적이었기에 기술통계만을 활용하였다. 먼저 문항별 응답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척도형 문항의 경우 ‘매우 그렇다’ 5점~‘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부여하여 평점을 계산하였다. 기술 통계 결과는 지면의 제한을 고려하여 문항 특성 및 결과의 시사점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 프로그램의 결과를 분리 또는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즉,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C교대 국제교류센터의 지원,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참여도와 같은 문항에서는 프로그램에 따른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아 통합적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프로그램별 특성에 관계되는 문항(예: 프로그램 내용과 수준의 적정성, 강사진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영어 능력 향상 정도와 그 기여 요소, 현지 교육 문화에 대한 이해 효과 등)이나 이에 따른 참여자들의 평가 관련 문항(예: 운영 방식, 학습 관리 시스템 활용, 프로그램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응답 결과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자유응답 문항의 응답 결과는 공통된 의견이나 유사한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척도형 및 선택형 문항의 응답 결과와 관련지어 기술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평가

#### 가. 프로그램 운영 기간 및 내용 수준의 적정성

C 교대 온라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 운영의 기간은 총 4주였으며, 호주 프로그램은 주 5회, 1일 2시간, 캐나다 프로그램은 주 3회, 1일 2시간 30분 진행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의 적정성에 대해 연수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은 ‘매우 길다(5)~ 매우 짧다(1)’에 대해 응답 평균 3.09(호주: 3.39, 캐나다 2.73)로서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운영방식(주당 수업 횟수와 시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매우 많다(5)~ 매우 적다(1)’에 대해 응답 평균 3.24(호주: 3.33, 캐나다 3.13)로서 대체로 적정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캐나다 프로그램의 경우, 호주 프로그램과 동일 기간 동안 운영되었지만 매일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와 관련하여 자유 응답에서는 주 3회 2시간 30분 수업보다 횟수를 늘리고 수업 시간을 줄이는 방향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한국의 설날 연휴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연수참여 학생 중 일부는 이로 인한 불편에 대해 향후 일정 계획 시 고려할 사항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표 4〉 프로그램 운영 기간 및 방식의 적정성

구분		매우 길다 (많다)	길다 (많다)	적정 하다	짧다 (적다)	매우 짧다 (적다)	합계	평점
운영 기간 적정성*	호주	2 (11.1%)	3 (16.7%)	13 (72.2%)	0 (0.0%)	0 (0.0%)	18	3.39
	캐나다	0 (0.0%)	2 (13.3%)	7 (46.7%)	6 (40.0%)	0 (0.0%)	15	2.73
	전체	2 (6.1%)	5 (15.2%)	20 (60.6%)	6 (18.2%)	0 (0.0%)	33	3.09
운영 방식 (주당 회수 및 시간) 적정성**	호주	1 (5.6%)	6 (33.3%)	9 (50.0%)	2 (11.1%)	0 (0.0%)	18	3.33
	캐나다	1 (6.7%)	3 (20.0%)	8 (53.3%)	3 (20.0%)	0 (0.0%)	15	3.13
	전체	2 (6.1%)	9 (27.3%)	17 (51.5%)	5 (15.2%)	0 (0.0%)	33	3.24

\* '매우 길다(5)~ 매우 짧다(1)'로 응답함 \*\* '매우 많다(5)~매우 적다(1)'로 응답함

‘수업과 자료의 수준은 본인에게 적정하였습니까?’의 설문에 대해 프로그램 참여자의 87.9%(‘보통이다’ 81.8%, ‘그렇지 않다’ 6.1%)는 어렵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참여자의 12.1%는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캐나다 프로그램의 경우 수업과 자료의 수준이 어렵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전혀 없었는데, 이는 연수 이전에 T대학에서 참여자들의 영어 능력에 대한 사전 평가를 실시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과제의 양과 수준은 본인에게 적정하였습니까?’의 설문에 대해 프로그램 참여자의 93.9%는 과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즉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제시되는 과제의 양과 수준에 대해서도 부담을 크게 느끼지는 않았다.

〈표 5〉 프로그램 내용과 수준의 적정성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평점
수업과 자료 수준의 어려운 정도*	호주	0 (0.0%)	4 (22.2%)	14 (77.8%)	0 (0.0%)	0 (0.0%)	18	3.22
	캐나다	0 (0.0%)	0 (0.0%)	13 (86.7%)	2 (13.3%)	0 (0.0%)	15	2.87
	전체	0 (0.0%)	4 (12.1%)	27 (81.8%)	2 (6.1%)	0 (0.0%)	33	3.06
과제 양과 수준의 과도한 정도**	호주	0 (0.0%)	0 (0.0%)	14 (77.8%)	3 (16.7%)	1 ( )	18	2.72

	캐나다	1 (6.7%)	1 (6.7%)	7 (46.7%)	6 (40.0%)	0 (0.0%)	15	2.80
	전체	1 (3.0%)	1 (3.0%)	21 (63.6%)	9 (27.3%)	1 (3.0%)	33	2.76

\* '매우 어렵다(5)~매우 쉽다(1)'로 응답함

\*\* '매우 과도하다(5)~전혀 부담이 없다(1)'로 응답함

#### 나. 프로그램 참여도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자기 성찰에 바탕하여 참여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했다는 긍정적 응답을 하였으며(81.8%, 평점 4.24), 수업 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작용에 임했다(84.9%, 평점 4.09)고 응답하였다. 온라인으로 운영된 연수였지만, 프로그램 참여자들 대부분이 성실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6〉 프로그램 학생 참여도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평점
연수 수업 참여 및 과제 수행에 성실함	16 (48.5%)	11 (33.3%)	4 (12.1%)	2 (6.1%)	0 (0.0%)	33	4.24
수업 중 상호작용과 활동에 적극적 참여함	9 (27.3%)	19 (57.6%)	4 (12.1%)	1 (3.0%)	0 (0.0%)	33	4.09

#### 다. 프로그램 만족도 및 지속 필요성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강사진과 지원 체제, 프로그램 제반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이와 함께 프로그램의 지속 필요성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온라인 프로그램의 향후 운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참여자의 강사진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표 7〉과 같다. 교수자가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였는지에 대하여 93.9%의 참여자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활용하였는가에 72.7%,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피드백을 제공하였는지에 대하여 90.9%의 참여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참여자들은 또한 대체로 교수자들의 성실함과 열정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평점 4.64), 교수자들이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보았다(평점 4.27). 그런데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들의

응답 결과에 차이가 두드러진 부분도 있었다. 즉, ‘교수자가 다양하고 효과적인 수업 방법을 활용하였는가?’에서 호주 프로그램의 평점(4.22)이 캐나다(3.67)보다 높게 나타났다. 호주 프로그램은 현지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와 호주영어에 대한 연수뿐만 아니라 현지 초등학교에서의 수업과 연관된 준비 활동 및 수업 관찰, 수업 실연 등이 포함된 다양한 구성이 특징이었다. 이에 온라인으로 운영된 연수 프로그램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수자가 다양한 교육방법을 시도하였기에 긍정적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자유 응답 문항 분석에서는 두 프로그램 모두 참여자들에게 좀 더 많은 발화 기회를 부여할 것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지만, 캐나다 프로그램에서는 보다 즉각적이고 개별적인 피드백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7〉 프로그램 강사진 만족도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평점
교수자는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수업에 임함	호주	15 (83.3%)	3 (16.7%)	0 (0.0%)	0 (0.0%)	0 (0.0%)	18	4.83
	캐나다	8 (53.3%)	5 (33.3%)	2 (13.3%)	0 (0.0%)	0 (0.0%)	15	4.40
	전체	23 (69.7%)	8 (24.2%)	2 (6.1%)	0 (0.0%)	0 (0.0%)	33	4.64
교수자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활용함	호주	8 (44.4%)	7 (38.9%)	2 (11.1%)	1 (5.6%)	0 (0.0%)	18	4.22
	캐나다	2 (13.2%)	7 (46.7%)	5 (33.3%)	1 (6.7%)	0 (0.0%)	15	3.67
	전체	10 (30.3%)	14 (42.4%)	7 (21.2%)	2 (6.1%)	0 (0.0%)	33	3.97
교수자는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노력함	호주	8 (44.4%)	9 (50.0%)	1 (5.6%)	0 (0.0%)	0 (0.0%)	18	4.39
	캐나다	5 (33.3%)	8 (53.3%)	1 (6.7%)	1 (6.7%)	0 (0.0%)	15	4.13
	전체	13 (39.4%)	17 (51.5%)	2 (6.1%)	1 (3.0%)	0 (0.0%)	33	4.27

프로그램 운영 시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각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운영의 상호 주체인 C교대 국제교류센터와 해외 파트너 기관의 지원에 대해 모두 만족스러워 하였다. 〈표 8〉에 따르면, C교대 국제교류센터의 지원 정도에 대하여 응답자의 75.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런데 현지 기관의 지원 정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 호주 프로그램의 경우 94.4%, 캐나다 프로그램의 경우 73.3%의 참여자들이 긍정적 만족도를 보여 캐나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았다.

〈표 8〉 프로그램 운영 시 지원기관에 대한 만족도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평점
C교대 국제교류센터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		10 (30.3%)	15 (45.5%)	7 (21.2%)	1 (3.0%)	0 (0.0%)	33	4.03
현지 기관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	호주*	6 (33.3%)	11 (61.1%)	1 (5.6%)	0 (0.0%)	0 (0.0%)	18	4.28
	캐나다**	3 (20.0%)	8 (53.3%)	2 (13.3%)	2 (13.3%)	0 (0.0%)	15	3.80
	전체	9 (27.3%)	19 (57.6%)	3 (9.1%)	2 (6.1%)	0 (0.0%)	33	4.06

\*호주 A대학, 교육청, 현지초등학교의 지원, \*\*캐나다 T대학 여학원의 지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지에 대하여 81.8%의 참여자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동료나 후배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69.7%의 응답자들이 추천 의향을 보였다. Covid-19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운영된 온라인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87.3%의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의 일부는 기존 오프라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온라인-오프라인 경험의 비교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은 향후 해외 온라인 연수의 접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시사하며, 이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고려할 대목이다.

〈표 9〉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 및 지속 필요성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평점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함	호주	4 (22.2%)	12 (66.7%)	1 (5.6%)	1 (5.6%)	0 (0.0%)	18	4.06
	캐나다	3 (20.0%)	8 (53.3%)	3 (20.0%)	0 (0.0%)	1 (6.7%)	15	3.80
	전체	7 (21.2%)	20 (60.6%)	4 (12.1%)	1 (3.0%)	1 (3.0%)	33	3.94
동료 학생들이나 후배들에게 프로그램 추천 의향	호주	6 (33.3%)	9 (50.0%)	2 (11.1%)	1 (5.6%)	1 (5.6%)	18	4.17
	캐나다	2 (13.3%)	6 (40.0%)	5 (33.3%)	1 (6.7%)	1 (6.7%)	15	3.47

	전체	8 (24.2%)	15 (45.5%)	7 (21.2%)	2 (6.1%)	1 (3.0%)	33	3.82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해외연수 프로그램 지속 여부	호주	6 (33.3%)	9 (50.0%)	2 (11.1%)	1 (5.6%)	0 (0.0%)	18	4.11
	캐나다	3 (20.0%)	11 (73.3%)	0 (0.0%)	0 (0.0%)	1 (6.7%)	15	4.00
	전체	9 (27.3%)	20 (60.0%)	2 (6.1%)	1 (3.0%)	1 (3.0%)	33	4.06

## 2. 프로그램의 효과

### 가. 영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연수의 성과로, 글로벌 역량의 한 요소인 영어능력 향상에 대한 자기 평가에서 75.8%의 학생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부정적 평가를 한 경우는 없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 중 78.8%는 연수 내용이 영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 인원이 많아 ‘영어 말하기’ 기회가 제한적이었고, 매일 발화의 양이 고르지 못하였으며, 새로운 어휘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환경이 언급되었다.

〈표 10〉 프로그램의 효과: 영어능력 향상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평점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됨	호주	2 (11.1%)	14 (77.8%)	2 (11.1%)	0 (0.0%)	0 (0.0%)	18	4.00
	캐나다	1 (6.7%)	8 (53.3%)	6 (40.0%)	0 (0.0%)	0 (0.0%)	15	3.67
	전체	3 (9.1%)	22 (66.7%)	8 (24.2%)	0 (0.0%)	0 (0.0%)	33	3.85
예비교사 영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됨	호주	3 (16.7%)	12 (66.7%)	3 (16.7%)	0 (0.0%)	0 (0.0%)	18	4.00
	캐나다	1 (6.7%)	10 (66.7%)	3 (20.0%)	0 (0.0%)	1 (6.7%)	15	3.67
	전체	4 (12.1%)	22 (66.7%)	6 (18.2%)	0 (0.0%)	1 (3.0%)	33	3.85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많이 향상된 언어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영어 듣기’와 ‘영어 말하기’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각각 48.5%였으며, 영어 쓰기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소수였고(3.0%) 영어 읽기 기능에 대한 응답은 없었다.

〈표 11〉 가장 향상된 영어 기능

구분	영어 듣기	영어 말하기	영어 읽기	영어 쓰기	합계
호주	7 (38.9%)	10 (55.6%)	0 (0.0%)	1 (5.6%)	18
캐나다	9 (60.0%)	6 (40.0%)	0 (0.0%)	0 (0.0%)	15
전체	16 (48.5%)	16 (48.5%)	0 (0.0%)	1 (3.0%)	33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 프로그램 요소를 묻는 질문에 대해, 듣기와 읽기 자료는 호주와 캐나다 프로그램 모두에서 긍정적 응답이 다수로서 학습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호주 프로그램의 수업관찰이나 수업실연, 동료 간 토론 등 학생들이 직접 개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요소가 각각 평점 4.06과 4.28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주 프로그램의 경우 현지 초등학교 교사들의 수업을 관찰하고 초등학교 교실을 관찰할 수 있으며, 호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기획하여 진행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다양하고 유의미하며 실제적인 경험이 영어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한 것이다. 반면 캐나다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활동 발표 및 시연 등의 그룹 프로젝트가 있었지만, 현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C교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영어 사용 경험의 실제성과 유의미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12〉 프로그램의 효과: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 요소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평점
듣기와 읽기 자료	호주	3 (16.7%)	12 (66.7%)	3 (16.7%)	0 (0.0%)	0 (0.0%)	18	4.00
	캐나다	1 (6.7%)	13 (86.7%)	0 (0.0%)	1 (6.7%)	0 (0.0%)	15	3.93
	전체	4 (12.1%)	25 (75.8%)	3 (9.1%)	1 (3.0%)	0 (0.0%)	33	3.97
동료학생 간 토론	호주	6 (33.3%)	11 (61.1%)	1 (5.6%)	0 (0.0%)	0 (0.0%)	18	4.28

	캐나다	2 (13.3%)	7 (46.7%)	5 (33.3%)	1 (6.7%)	0 (0.0%)	15	3.67
	전체	8 (24.2%)	18 (54.5%)	6 (18.2%)	1 (3.0%)	0 (0.0%)	33	4.00
수업관찰 및 수업실연	호주	3 (16.7%)	13 (72.2%)	2 (11.1%)	0 (0.0%)	0 (0.0%)	18	4.06
자료함(Moodle) 활용 과제 및 토론	호주	4 (22.2%)	11 (61.1%)	3 (16.7%)	0 (0.0%)	0 (0.0%)	18	4.06
그룹 프로젝트 및 발표	캐나다	0 (0.0%)	8 (53.3%)	6 (40.0%)	1 (6.7%)	0 (0.0%)	15	3.47
학습관리시스템 과제 및 토론	캐나다	1 (6.7%)	9 (60.0%)	4 (26.7%)	1 (6.7%)	0 (0.0%)	15	3.67

#### 나. 타문화에 대한 이해

온라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의 교육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참여자가(54.5%) 긍정적 응답을 하였지만, 평점(3.42)은 높지 않았다(〈표 13〉 참조). 현지 교육방식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63.6%의 참여자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지만, 평점은 높지 않았다(3.64). 그리고 호주 프로그램의 평점이 캐나다 프로그램의 평점보다 높게 나왔는데,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호주 프로그램에는 현지 초등학교의 교실과 호주 초등학교 교사들과의 교류까지 포함되어 있어 현지 문화 및 교육에 대한 체험 및 노출 기회가 더 많았던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현지 교육과 문화 이해 측면에서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프라인 해외 연수가 현지의 상황과 맥락, 분위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고 현지 교육환경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데 반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연수에서는 직접적인 체험 경험이 제한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반응보다는 긍정적 반응이 높고, 특히 호주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더 높다는 점에서,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타문화 이해 측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13〉 프로그램의 효과: 현지 교육과 문화 이해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평점
현지 언어와 문화에 대하여 잘 알게 됨	호주	4 (22.2%)	12 (66.7%)	2 (11.1%)	0 (0.0%)	0 (0.0%)	18	4.11
	캐나다	2 (13.3%)	3 (20.0%)	4 (26.7%)	6 (40.0%)	0 (0.0%)	15	3.07
	전체	4 (12.1%)	14 (42.4%)	8 (24.2%)	6 (18.2%)	1 (3.0%)	33	3.42
현지 교육 방식에 대하여 잘 알게 됨	호주	2 (11.1%)	14 (77.8%)	2 (11.1%)	0 (0.0%)	0 (0.0%)	18	4.00
	캐나다	1 (6.7%)	8 (53.3%)	6 (40.0%)	0 (0.0%)	0 (0.0%)	15	3.67
	전체	6 (18.2%)	15 (45.4%)	6 (18.2%)	6 (18.2%)	0 (0.0%)	33	3.64

다.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 및 예비교사 온라인수업 역량 강화

C교대 온라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화상회의 도구와 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대다수는 온라인 형식의 연수가 강의 내용 이해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72.7%), 연수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이나 자료함 등의 온라인 플랫폼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다고 인식하였다(84.9%). 또한 참여자의 60.6%는 강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습득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과반수의 참여자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점에서, 온라인 방식의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예비교사들의 온라인 교수-학습 역량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온라인 연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보완할 부분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연수 참여자 수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 평점이 3.61로 낮은 편이고, 자유 응답에서도 강사 당 참여자 수가 다소 많아서 수업 참여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음이 거듭 지적되었다.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수강자의 참여도, 태도, 분위기, 열의 등을 직감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수강자의 참여를 북돋울 수 있는 즉각적인 여러 방안이 있지만, 온라인 환경에서는 수강자의 요구 파악 및 참여도 제고가 쉽지 않은 만큼, 참여자의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다양한 방식의 소통 채널을 가동하는 등의 방안이 더욱 모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14〉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평점
강의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임	호주	2 (11.1%)	11 (61.1%)	5 (27.8%)	0 (0.0%)	0 (0.0%)	18	3.83
	캐나다	2 (13.3%)	9 (60.0%)	3 (20.0%)	1 (6.7%)	0 (0.0%)	15	3.80
	전체	4 (12.1%)	20 (60.6%)	8 (24.2%)	1 (3.0%)	0 (0.0%)	33	3.82
연수기관 학습관리시스템* 을 효율적으로 활용함	호주	9 (50.0%)	7 (38.9%)	1 (5.6%)	0 (0.0%)	1 (5.6%)	18	4.28
	캐나다	3 (20.0%)	9 (60.0%)	2 (13.3%)	1 (6.7%)	0 (0.0%)	15	3.93
	전체	12 (36.4%)	16 (48.5%)	3 (9.1%)	1 (3.0%)	1 (3.0%)	33	4.12
교수자와 동료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효과적임	호주	3 (16.7%)	7 (38.9%)	5 (27.8%)	3 (16.7%)	0 (0.0%)	18	3.56
	캐나다	3 (20.0%)	7 (46.7%)	4 (26.7%)	1 (6.7%)	0 (0.0%)	15	3.80
	전체	6 (18.2%)	14 (42.4%)	9 (27.3%)	4 (12.1%)	0 (0.0%)	33	3.67
새롭고 다양한 온라인 교수학습 방법을 접하고 알게 됨	호주	5 (27.8%)	8 (44.4%)	4 (22.2%)	1 (5.6%)	0 (0.0%)	18	3.94
	캐나다	3 (20.0%)	4 (26.7%)	7 (46.7%)	1 (6.7%)	0 (0.0%)	15	3.60
	전체	8 (24.2%)	12 (36.4%)	11 (33.3%)	2 (6.1%)	0 (0.0%)	33	3.79
참여자 수의 적정성**	호주	0 (0.0%)	7 (38.9%)	11 (61.1%)	0 (0.0%)	0 (0.0%)	18	3.39
	캐나다	3 (20.0%)	7 (46.7%)	5 (33.3%)	0 (0.0%)	0 (0.0%)	15	3.87
	전체	3 (9.1%)	14 (42.4%)	16 (48.5%)	0 (0.0%)	0 (0.0%)	33	3.61

\* 호주: 온라인 화상회의(Zoom) 연결 및 자료함(Moodle), 캐나다: T대학 학습관리시스템

\*\* 매우 많다(5), 많다(4), 적정하다(3), 적다(2), 매우 적다(1)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온라인 연수에서 경험한 수업 방법 중 가장 만족한 부분은 ‘실시간 수업 및 소회의실 토론’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업관찰 및 수업실연’(호주)과 ‘프로젝트 활동 및 발표’(캐나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온라인 학습 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한 과제나 토론, 비동시적 강의 청취 등 비동시적 의사소통(asynchronous communication)은 동시적인 의사소통(synchronous communication)에 비해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

도 실시간으로, 화면에서라도 얼굴을 마주하고 상호작용하며, 참여적, 활동적으로 수업하는 방법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표 15〉 온라인 비대면 수업(방법) 중 만족한 교수-학습 방법

구분	실시간 수업 및 소회의실 토론	학습관리시스템 활용 과제 및 토론	활동 및 발표 (프로젝트, 수업 등)	비동시적 강의 청취	기타	합계
호주	12 (66.7%)	0 * (0.0%)	5 * (27.8%)	0 (0.0%)	1 (5.6%)	18
캐나다	9 (60.0%)	2 ** (13.3)	2 ** (13.3%)	2 (13.3%)	0 (0.0%)	15
전체	21 (63.6%)	2 (6.1%)	7 (21.2%)	2 (6.1%)	1 (3.0%)	33

\* 호주: 학습관리시스템(Moodle), 활동 및 발표(수업 관찰 및 실연)

\*\* 캐나다: 학습관리시스템 과제 및 토론, 활동 및 발표(그룹 프로젝트 및 발표)

### 3. 프로그램의 한계 및 개선점

설문지의 자유응답형 문항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제안한 개선점 및 한계를 살펴보면, 연수를 기획하고 주관하는 C교대의 국제교류센터에 추후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나 건의하고 싶은 것을 적는 자유응답형 문항에 대해,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내를 원했고, 프로그램 일정 기획 시 설날 연휴와 같은 휴일과 부득이하게 겹치게 되는 경우 사전에 미리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이 프로그램별로 제안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호주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및 개선점 제안

호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반기의 영어 능력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과 후반기의 수업관찰 및 수업실연 진행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구별된다. 전반기 영어 수업에서,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듣는 강의보다는 영어 말하기와 활동 등의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하는 요구를 했다. 18명의 참여자들이 한 강의실에서 한 번에 수강하는 형식보다는 분반이나 소그룹 등의 형식을 활용하고, 무엇보다도 원어민과의 대화 및 피드백을 원하고 있었다.

후반기의 수업 관찰 및 실연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횟수와 기회가 더 많았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현지 초등학교 선생님과 수업 준비과정에서 좀 더 상호 협의할 기회를 원하였으며, 호주의 교수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고 싶어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수업 실현 기회를 더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참여자들은 온라인 연수의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고충도 토로하였다. 특히 동시적으로 실시간 수업을 진행할 때 문제 발생의 소지는 항상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호주 현지 초등학교의 소재지가 근교이거나 산간에 위치할 경우, 인터넷연결의 문제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곤 해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 현지 초등학교 교실의 수업관찰 시 장비 부족(교사가 가진 단수의 노트북이나 카메라 등) 및 교실수업 상황의 소음 등도 어려움의 요소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수 내용에 대해서 연수기획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나름의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과 더 추가할 부분 등을 지적하며, 자신들이 알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반영된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참여자 응답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오리엔테이션이 너무 깁니다. 호주나 학교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호주 참여자 A)

호주의 슬랭이나 이디엄수업은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의 예비초등교사로서 정말 필요한 수업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주 참여자 B)

또한 C교대 국제교류센터의 지원방식 중 연수 지도교수제도의 효과를 좋게 평가하였으며, 연수참여자들의 사전 모임을 제안하면서 개선의견을 밝혔다. 참여자 응답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담당교수님과 1주일에 1~2회, 팬츠는 점과 개선되어야 하는 점 등을 소통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지도교수님께서 수업 이후에 피드백을 계속 받아주셔서 그것을 호주 학교에 전달해주셨고, 그래서 수업이 계속 개선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호주 참여자 C)

원어민 교수자와 온라인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끼리 영어로 대화하면서 미리 학습할 내용에 대해 같이 이야기 나누며 가까워지는 시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서로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영어로 바로 소통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고 학습 내용 자체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에 적응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호주 참여자 D)

#### 나. 캐나다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및 개선점 제안

캐나다 프로그램에서는 수강생 인원 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있었다. 학생들은 원어민의 개별적인 피드백을 원하고 있었지만, 15명의 학생이 동시에 입장한 온라인 강의실에서는 이러한 점이 해소되지 않아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수업 운영면에서 줌(Zoom)을 활용한 그룹 활동이 좋았지만, 같은 소그룹과의 토의, 발표 자료 만들기, 그룹 활동 후 발표 등의 반복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현하였다. 또한 C교대 참여자들로서만 구성된 클래스를 넘어 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의 만남 기회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었다. 캐나다 연수 프로그램은 T대학에서 C교대 예비교사들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서 교육 분야에 초점을 둔 영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긍정적이었지만, 한편 프로그램 참여자가 모두 C교대 구성원들이었기 때문에 해외 프로그램으로서의 장점을 충분히 누리기가 어려웠던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캐나다의 교육 현실을 알 수 있는 교사 인터뷰를 자료로 사용한 점이 흥미로웠고 교육적 자극이 많이 되었지만, 일반적인 교육에 관련된 강의 내용은 이미 C교대서 학습한 내용을 영어로 말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캐나다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종합하면, 보다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는 수업과 교육적 콘텐츠를 심도있게 다루는 것, 그리고 현지 문화 및 T대학의 장점(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적 구성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예비교사들은 T대학의 다양한 학생들과의 교류 및 문화 체험을 위해서 연수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가 반드시 ‘교육’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참여자 응답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우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학생들과도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 경우에는 꼭 주제가 교육이 아니어도 좋을 듯하다. (캐나다 참여자 A)

수업 시간 외에 T 대학에서 영어수업을 듣고있는 다른 나라 학생들과 게임 등을 줌으로 할 수 있는 시간도 꾸준히 있었는데 시차 때문에 참여하기가 어려웠다. 사실 시차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아쉽긴 했다. (캐나다 참여자 B)

영어능력 이외에 캐나다 문화와 관련된 프로젝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 외에 다른 학생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참여자 C)

## V. 결론

본 연구는 Covid-19으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C교대가 시도한 온라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적정성 및 효과를 평가하여 향후 온라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의 적정성,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참여도, 프로그램의 효과, 프로그램의 한계 및 개선점을 알아보았다. 설문 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참여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 및 방식, 내용과 과제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프로그램의 참여도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강사진과 관계 기관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무엇보다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서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동료나 후배에게 프로그램을 추천할 의향을 표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는 목표로 설정한 예비교사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참여자들은 영어 능력 향상 측면에서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다고 인식하였으며, 타문화 및 현지 교육환경 이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과반수를 상회하여, 온라인 연수를 통한 예비교사 글로벌 역량 강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온라인 연수의 내용과 활동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타 문화 및 현지 교육환경 이해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호주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평점이 캐나다 프로그램보다 높았는데, 이는 오프라인 해외 교육실습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현지의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현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특강과 워크숍, 현지 교실 수업을 관찰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현지 협력교사들과 수업에 대하여 토의하고 수업을 실행해 볼 기회가 호주 프로그램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캐나다 프로그램에서도 현지 교사들과의 인터뷰 등을 직접 제작하여 연수 자료로 사용하고 영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게임 등의 활동을 발표하고 시연하는 등 예비교사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편성되었지만, 현지 수업을 직접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나 현지 교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에 대한 참여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연수 내용을 이해하고 과제 수행, 토론 등에 참여하는데 큰 장애가 없었으며, 학습관리시스템이나 자료함 등의 온라인 플랫폼도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자 수를 줄일 필요가 있음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온라인 교수학습 방법의 습득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과반수가



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연수에서 경험한 수업 방법의 만족도 측면에서 학습관리시스템 활용 과제 및 토론과 같은 비동시적 의사소통보다는 실시간 수업과 같은 동시적 의사소통을 보다 선호하였다.

자유 응답 문항에서 연수 참여자들이 제시한 프로그램의 제한점 및 개선 요구를 바탕으로 향후 온라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개선 및 운영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에서도 현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오프라인 프로그램과 같은 직접적인 수업 관찰 및 실행의 기회, 현지 교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한다면, 현지 체류의 높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예비교사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수업 관찰 및 실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수 참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지 수업을 원활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비가 충분히 마련되어 교실에 배치될 필요가 있고, 현지 학교의 인터넷 연결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연수 이전에 온라인 수업 설계 및 실행에 대한 사전 연수를 실시하거나, 현지의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보다는 소그룹을 지도하는 등 수업 실행 방식을 다변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화상회의 도구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연수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수 참여자의 수를 적정화하고, 현지 교사 및 강사와의 상호작용 및 피드백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예비교사들의 영어 구사 능력 향상이고, 더 많은 발화 기회 및 상호작용, 영어 사용에 대한 개별적인 피드백이 충분히 제공된다면 연수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실시간 강의실에 입장하는 인원을 5~10인 정도의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연수 비용의 상승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지만,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소규모 그룹과 전체 그룹 운영을 혼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지 교사 및 강사뿐만 아니라 현지의 예비교사 혹은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거나 교류할 수 있는 활동을 온라인 연수에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캐나다 프로그램은 T대학과의 협력으로 운영되어 해당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교류할 기회가 주어진 점이 특징이었다. 시차의 문제로 참여도는 낮았지만,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아쉬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하면 향후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이를 좀 더 개선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예비교사들은 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법,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존중을 체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관점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논문 투고일: 2021. 6. 30.    ※ 논문 수정일: 2021. 8. 6.    ※ 게재 확정일 : 2021. 8. 30.

## 〈참고문헌〉

- 강후동(2010). 효과적인 초등교사 해외영어연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언. **영어교육연구**, 22(1), 249-272.
- 김민정(2014). 예비유아교사에게 단기해외교육봉사의 의미. **유아교육학논집**, 18(3), 257-282.
- 신현석, 주휘정, 정주영, 신원학(2009). 교원양성정책의 국제화 방안 모색 - 교원양성기관의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16(2), 147-176.
- 이도경, 김혜영(2014). TEE 원격연수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17(1), 58-83.
- 이혜원, 이수정, 박찬호, 김형렬(2019). 글로벌 역량 교육의 핵심 학습요소와 영역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비교교육연구**, 29(4), 1-31.
- 임병빈, 김재영(2008). 혼합식 학습 전략을 활용한 영어교사 연수 활성화 방안. **영어어문교육**, 14(1), 145-167.
- 임수연(2018). 예비교사의 국외연수 실습에서 영어사용경험에 대한 탐구. **초등영어교육**, 24(4), 191-207.
- 전선영(2020). 초등예비교사의 해외교육실습 경험 연구. **인문과학연구**, 39, 135-162.
- 정혜영(2012). 예비교원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양성기관의 해외 현장경험 프로그램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9(2), 475-499.
- 최윤정(2015). 사회과 예비교사들의 교육봉사활동 경험과 교사전문성 신장. **사회과교육**, 54(1), 15-29.
- 최윤정, 최민식(2011). 사회과 예비교사들의 해외 학습 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이해. **사회과교육**, 50(3), 93-106.
- 통계청(2018). 통계지리정보서비스. (검색일 2021. 6. 3.)
- Cushner, K. H.(2007). The role of experience in the making of internationally-minded teachers. *Teacher Education Quarterly*, 34(1), 27-39.
- Cushner, K. H., & Mahon, J.(2002). Overseas student teaching: Affecting personal, professional, and global competencies in an age of globalization.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6(1), 44-58.
- Hunter, B., White, G. P., & Godbey, G. C.(2006). What does it mean to be globally competent?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0(3), 267-285.
- Lenkaitis, C. A.(2020). Teacher candidate reflection: Benefits of using a synchronous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based virtual exchange.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92, 1-9.
- OECD.(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Retrieved from <https://www.oecd.org/edu/statistics/deseeco>.
- OECD.(2018). Preparing our youth for an inclusive and sustainable world: The OECD PISA global competence framework. Retrieved from <https://www.oecd.org/education/Global-competency-for-an-inclusive-world.pdf>.
- Parr, G., & Chan, J.(2015). Identity work in a dialogic international teaching practicum. *Teaching Education*, 26(1), 38-54.
- Putnam, R. T., & Borko, H.(2000). What do new views of knowledge and thinking have to

- say about research on teacher learning? *Educational Researcher*, 29(1), 4-16.
- Sharpe, E. K.(2015). Colonialist tendencies in education abroad. *International Journal of Teaching and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27(2), 227-234.
- Walters, L. M., Garii, B., & Walters, T.(2009) Learning globally, teaching locally: incorporating international exchange and intercultural learning into pre-service teacher training. *Intercultural Education*, 20(1), 151-158.
- Willard-Holt, C.(2001). The impact of a short-term international experience for preservice teacher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7(4), 505-517.
- Zhang, Z., Li, J., Liu, F., & Miao, Z.(2016). Hong Kong and Canadian students experiencing a new participatory culture: A teacher professional training project undergirded by new media literacie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59, 146-158.

〈Abstract〉

---

## Relevance and Effects of Online International Programs Perceived by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

Lee, Young-A<sup>1</sup>, Yoon, Okkyong<sup>2</sup>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relevance and effects of online international programs implemented by C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the era of the Covid-19 pandemic and to explore ways to sustain and improve international programs through online methods in the future. To this end, we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the 33 program participants, and the survey included questions regarding the relevance of program content and organization to the needs of the participants; the level of participant satisfaction and participation; the effects of the programs; program limitations and elements requiring improvement. Looking into the survey results, we found that overall, the participants considered the content and organization of the programs to be relevant to their needs;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responded positively to the questions of whether the programs were appropriate in terms of duration, schedule, content, and assignments. The participants also appeared to be actively engaged in online classes and activities and to be satisfied with the overall quality of the programs. As for the effects of the programs, more than half of the participants perceived the programs to be effective in developing their English communication skills. They also reported positive gains in their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and education of the host country. Their experiences with online learning were also promising in that they had little difficulty understanding the content of online classes and participating in discussions, and online platforms such as a learning management system and an online archive were effectively used along with the classes. Nevertheless, the participants pointed out some limitations of the programs such as the optimal class size for an online program and some technical issues with observing local classrooms online. Drawing implications from the findings, we then suggested future directions to improve online overseas programs.

**Keywords** : global competence, teacher education, international teaching practicum, overseas English training, online training

---

1. Associate Professor,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leeya@cje.ac.kr (Lead Author)

2. Professor,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okyoon@cje.ac.kr (Corresponding Author)